

공직자 비위 예방·일하는 분위기 조성 중점

광주시 감사위 '2016 감사 종합계획' 보니

불합리한 관행 해소

탈루 예방 지방세입 확충

내달 15일 자체감사 개시

2016년 광주시의 감사는 시민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공직자 비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도 적극 시행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2016년도 감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감사위원 6명 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감사위원장 전결에 관한 사항 6건도 보고받았다.

이날 확정된 2016년도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불합리한 관행 시정 감사 ▲탈루·온난 예방과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재무감사 ▲시민 안전 및 불편 해

소를 위한 감사 ▲건축, 도시계획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특정 감사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자체감사는 시 본청인 환경생태국을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등 사업소 총 25개 기관이 해당되며, 종합감사의 경우 동구와 서구에 대한 자치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등 2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은 지방 상주 감사조직인 감사원 지방행정감사2국 소속의 광주 현지사무소가 설치돼 보다 엄정하고 선제적인 자체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감찰과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는 예방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를 홍보해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광주시 자체감사 일정

2월15~29일	대형공사특정감사1차	6월13~17일	남부소방서
2월17~26일	국공유지관리실태	6월20~24일	북부소방서
2월22~26일	보건환경연구원	6월20~29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3월2~18일	시민안전시설 특정감사	7월4~8일	우치공원관리사무소
3월7~11일	여성재단	7월4~13일	도시공사
3월14~18일	서울본부	9월5~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제교육진흥원
3월28일~4월1일	그린카진흥원	9월21~27일	상수도시설관리소
3월24~4월8일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10월10~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월20~29일	서구	10월10~21일	환경생태국
5월9~18일	동구	10월24~28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5월23~27일	신용보증재단	10월24일 ~12월2일	대형공사특정감사3차
5월23일 ~6월24일	대형공사특정감사2차	11월7~11일	시립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5월30일~6월3일	서부소방서	12월5~16일	감사처분요구실태확인

새롭게 출범한 만큼 올해 감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이고 공정한 감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갖춰나갈것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기존 '감사관실'을 시장 소속의 합의회 감사기구로 재편하고, 지난해 12월1일 위원을 구성해 공식 출범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랑의 헌혈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26일 빛고을고객센터 13층 대회의실에서 부족한 혈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내년 광주서 물산업 박람회 열린다

市 '워터코리아' 유치

국내 유일의 물산업 종합박람회이자,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 '2017워터코리아(WATER KOREA)'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020년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 상수도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물산업 관련 업체 육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의 자숙적인 유치 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2017워터코리아' 유치를 신청한 결과, 대구시와 치열한 경쟁 끝에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광주 행사는 2017년 3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된다.

워터코리아는 전국 상·하수도 종사자와 관련 기업이 한자리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상·하수도 신기술 기자재 전시회 등을 통해 기술을 홍보

하고 첨단기술 개발을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물산업 관련 최대 박람회다.

또한 해외수출 비즈니스의 장으로 매년 180개 이상의 국내외 업체가 참가하고, 관람 인원이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에 72억원 상당의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워터코리아는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지식경제부 등이 후원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와 개최지 시·도가 공동 주관해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부산에서 열리며, 광주에서는 2005년에 열린 바 있다.

유용빈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최근 블루오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물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 유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는 물론, 시민들에게 물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9일까지 설맞이 과대포장 합동 단속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품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자치구·한국환경공단을 합동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포장 횡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포장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다. 식품, 화장품 등 종합선물세트는 개별제품을 담은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회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제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 64건에 대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이 가운데 9건을 적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공사장 등 160곳 전수조사

광주시는 시민안전실 주관으로 자치구와 지역안전관리추진단(상황관리반)을 구성해 오는 3월31일까지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재난취약시설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2월14일까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6개 점검반(시1, 자치구 5)을 편성해 대형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 160여 곳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물을 지정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에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일 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위험징후 발견 시 예방 조치 후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빙기에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축물, 축대·옹벽, 절개지 등에서 붕괴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생활주변에서 위험시설을 발견할 경우 시 종합상황실(062-613-2119)이나 안전신문고(앱) 등을 통해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대병원, 네팔 병원 복구 등 후속 봉사 구슬땀



윤택림 전남대병원장(뒷줄 왼쪽 네번째)과 허탁 기획조정실장(다섯번째)이 마니켈병원 헌판식에 참석,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지난 네팔 대지진 때 긴급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던 마니켈 현지 병원에 대한 후속관리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 대지진 당시 두 차례의 긴급구호활동 당시 전남대병원 긴급의료지원단의 활동본부로 사용되었던 마니켈병원은 말리푸르 주 해발 2000m에 위치한 병원으로 병원 건물은 만들어져 있었으나 현

지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8월 네팔 시민단체 '아스타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지역의 마니켈 병원 복구와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후속관리사업을 계속 펼쳐 왔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최근 3일간 윤택림 병원장, 허탁 기획조정실장 등이 직접 현

지를 방문해 전남대병원이 후원하고 네팔 아스타자가 관리하는 마니켈병원 헌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말리푸르 지역개발부 장관은 “지난해 대지진 때 구호활동을 펼친 전남대병원 의료지원단은 네팔 지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후속관리사업까지 펼친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 후문/북구청 주차장 2분 ! (정문과후문사이)

4면 올 대리석 / 내부 깔끔

1층 (상가 1칸)
2층~3층 (원룸 10개)
4층 (주택)

☆ 보 5,000만 월 460만 ☆ (용 1억2천)

매가 6억 6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7층 상가건물매매

- ▶ 1층 (커피숍)
- ▶ 2층~5층 (사우나, 주택)
-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 공실 없음 / 올시설 / 월세 책임보장

(보1억5천/ 용6억)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010-6834-4800

010-6832-9700